

광주 비정규직, 육아 휴직 후 복귀율 정규직의 절반

광주여성가족재단, 25세~44세 917명 조사...복귀율 46.7% 불과 돌봄 대책·퇴직 분위기 이유 꼽아...남성 28.8% “승진 등 차별 경험”

광주지역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율이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육아 휴직 사용 후 승진 등에서 차별을 경험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등 광주지역 여성보호제도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모·부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광주지역 만 25세~44세 이하 임신·출산 경험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노동자 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직

장 복귀 비율은 46.7%로, 정규·무기계약직(89.2%)과 42%p 넘는 차이를 보였다.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로는 '복귀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37.2%), '육아휴직 사용 후 전반적으로 퇴직하는 분위기여서'(25.6%), '원래 퇴직할 계획이라서'(9.3%), '복귀해도 직장 내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9.3%)라고 답했다. 기타(18.6%) 답변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 '복귀 후 자리 없음' 등도 언급됐다.

법적으로 보장된 9가지 육아휴직 제도 중 일부 제도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도 확인

됐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종류는 육아휴직제도 외에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난임치료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노동시간 단축 등이 있다.

이 중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는 95.9%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며, 도입률(79.9%)·활용률(78.4%) 또한 9가지 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인지도가 87.5%에 달하는데도 도입률 51.8%, 활용률 47.4%에 그쳤다. 난임치료휴가(도입률 34.0%), 가족돌봄휴직(38.4%), 가족돌봄 등 노동시간 단축(38.6%) 등 제도는 사업장 세 곳 중 한 곳 수준으로 도입률이 떨어졌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

유로 정규·무기계약직은 '업무 공백으로 인한 동료 직원의 부정적 인식'(26.5%)과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23.8%)를 가장 높게 꼽았다. 비정규직은 '제도 가용에 대한 사례가 없다'(29.0%)는 응답이 다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광주지역 여성 육아휴직사용은 여성은 평균 12.1개월, 남성은 6.9개월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여성은 자녀 출생 초기인 0~1세에, 남성은 1세나 초등입학기 등 전 연령대에서 사용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11.5%였으나 남성은 3.2%에 그쳤다. '두 제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여성은 47.2%, 남성은 83.6%에 달했다.

재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승진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다는 답변이 28.8%, 여성은 18.0%로 집계됐다. 또 직무 등 '배치'(남성 23.1%·여성 14.5%), '보상'(남성 28.8%·여성 16.7%), '평가'(남성 26.9%·여성 18.4%) 등 전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불이익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 경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단순히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 차원에서 인식 개선과 돌봄자 차별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 철거 대신 '원형 보존'

광주시, 복원 사업 설계 최종 확정 사유지 20.37㎡ 는 매입 실패 내년 5월까지 복원해 시민 개방



16일 광주시 동구 궁동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복원 공사를 앞두고 현장 보존을 위해 비닐과 철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동구 궁동에 있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 사업 방식을 기존 '철거·재시공'에서 '원형 보존'으로 급선회했다.

홍 변호사 타계 이후 궁동 자택을 보존해야 한다(2016년 10월 12일자 광주일보 1면, 13~14일자 6면)는 여론에 따라 착수한 가옥 복원 사업의 설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광주시는 16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정신계승위) 회의를 열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사업 가옥복원 방안 및 전시공간 조성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성안에는 홍남순 가옥에 대한 복원 방식을 당초 철거·신축에서 보수·보강으로 변경하고, 가옥 내 은행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광주시는 가옥 내 'ㄷ'자 모양으로 불발증 축된 공간 등의 건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해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3월 건축설계용역 과정에서 신축 시 건물 면적이 축소된다는 점, 외관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받은 데 따라 가옥을 유지 하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높하기로 했다.

사유지인 마당 일부와 세탁실, 화장실 등 20.37㎡ 부지는 끝내 매입 협상에 실패해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본 가옥 복원에는 영향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일정에 빠듯하다는 이유로 매입을 포기한 것이다.

가옥 측면에 높게 자란 은행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기로 했다. 은행나무 뿌리가 지나치게 자라 나 가옥 일부를 뒤흔들어 건물에 균열을 일으키고 바닥 콘크리트를 갈라 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광

주지는 은행나무와 가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팻말 등 전시물을 설치해 은행나무의 흔적을 남겨놓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공사 업체를 선정해 내년 5월까지 복원공사 및 전시 콘텐츠 설치를 마치고 가옥을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홍남순 변호사는 1963년 광주 궁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반독재 투쟁, 양심수를 위한 무료 변론을 해 온 1세대 민주인권변호사다. 5·18 당시에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가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에 전력하다 지난 2006년 타계했다.

홍남순 가옥은 5·18 당시 항쟁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 장소로도 활용됐으며 지난 2017년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29호로 지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매일유업 광주공장 '세척수 혼입' 조사 착수

25팩 수거 검사 의뢰...밸브 오작동 전후 생산 제품까지 추가 검사

광주시가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세척수 혼입' 제품을 수거해 검사 의뢰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16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찾아 현장 실사 후 25팩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상·이물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매일유업은 매일유우 오리지닐 멸균 200ml 일부 제품에 밸브 오작동으로 세척수(NaOH,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해 당일 생산제품(14만7000여개)을 회수하고 있다.

회수 품목은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제조일자가 9월 19일이고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다만 시일이 지나 이미 소비된 제품도 있어 18일까지 1만팩을 회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세척수가 혼입된 날(9월 19일) 제조된 제품뿐 아니라 밸브 오작동 전후 생산된 제품까지 매일유업으로부터 수거해 추가 검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현장 조사에 들어갔

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인해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사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16일 매일유우 오리지닐 멸균 200ml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일에 대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매일유우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놀라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이날 웹사이트에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올린 사과문에서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60개로,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납품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서 35명 집단 식중독

3명은 입원...노로바이러스 검출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35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관계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 서구보건소는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35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7시께 1명이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인 데 이어 13~14일 사이 유증상자 3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병

원 입원했다.

입원자 중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보건당국은 유증상자와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를 했으며 조리기구 등 30건의 환경 검체를 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서구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 등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